

스웨덴 2012년 노동시장 전망

손혜경 (스웨덴 옅살라대학교 경제사학과 연구원)

■ 머리말

스웨덴 경제는 최근 들어 외우내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부적인 상황을 보면 스웨덴은 유로존에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유로화지역 소속 몇 개 국가의 부채위기 및 이들 국가의 낮은 경제성장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이유로 2012년도 경제발전에 어두운 그늘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오랜 동안 판매량 저조에 따라 자금난을 겪어 오던 승용차 회사 사브(SAAB)가 결국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2011년 12월에 들어 법원에서 파산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약 3,400명의 직원들이 줄지에 실업을 하게 되었다.¹⁾ 이뿐만 아니라 최근 2월 들어서도 우수한 제약회사 아스트라 세네카(ASTRA ZENECA)가 경영 합리화를 사유로 스톡홀름 남쪽 교외 도시에 위치한 연구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100명에서 1,200명 사이의 우수한 인력이 갑자기 실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²⁾ 이러한 스웨덴 국내외의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이 글은 우선 2012년 스웨덴 경제 전망을 요약해 보고 이어 최근 노동시장 상황 및 2012년 노동시장 전망을 간략히 종합해 본다.

1) SvD, 2011-12-19, "Saabs konkurs beviljad".

2) SvD, 2012-02-09, "Sverige tappar forskning".

■ 2012년 스웨덴 경제 전망³⁾

스웨덴의 종합경기지수는 2012년 1월에 들어서며 추가로 2011년 12월보다 1.5단위만큼 하락하였다. 이 수치는 2011년 2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1개월간 연속으로 거의 24단위만큼 내려간 수치이다. 이는 스웨덴의 종합경기지수가 평균치보다 훨씬 낮아진 것을 말하며, 결국 스웨덴의 현재 경제 상태가 정상 수준보다 많이 내려간 것을 의미한다.

〈표 1〉 스웨덴 경기 상태

	평균치	최고치	최저치	2011년 11월	2011년 12월	2012년 1월	경제상태
경기종합지수	100.0	115.5	71.8	94.6	92.9	91.4	-
경기선행지수							
민간경제종합	9	32	-28	4	1	0	-
제조업	-4	12	-38	-11	-11	-14	-
주택건설 및	-16	48	-77	6	0	5	+
기타건설업							
소매업	13	39	-26	-9	-7	-6	--
민간서비스업	23	49	-21	16	10	6	-
소비자신뢰지수	52	30.0	-38.3	-7.4	-7.4	-1.3	-

주: + 정상보다 상승한 상황, - 정상보다 하락한 상황, -- 정상보다 상당히 하락한 상황.

자료: Konjunkturinstitutet (스웨덴 국립 경제연구소), *Konjunkturbarometern*, 2012. 1.

제조업의 경기선행지수는 1월에 3단위만큼 내려갔으며 이는 역사적 평균치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2011년 4사분기 동안에 내수와 수출시장의 주문량이 모두 하락하였다. 생산량과 고용률도 하락하였으며 2011년 10월과 비교할 때 시설가동률이 거의 1% 단위만큼 내려간 상황이다. 경기선행지수가 이렇게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들은 2012년 1사분기를 앞두고 비교적 긍정적인 경제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내수와 수출시장의 주문량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산량은 같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판단되며 대신 고용률은 추가로 약간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건설 및 기타 건설업 경기선행지수는 2012년 1월에 들어서면서 5단위만큼 상승했으며

3) Konjunkturinstitutet, 2012-01-26, *Konjunkturbarometern, Foretag (kvartal) och hushall Januari 2012*.

주문량과 생산량 그리고 고용률은 2011년 4사분기에 약간 상승하였다. 이 분야의 경기선행지수는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올라간 수치이다. 주택건설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성장세는 약세였으며 또한 이 분야의 자금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택건설업 및 기타건설업의 생산량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반면, 2012년 1사분기에 계속 생산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시에 주택건설업과 기타건설업 간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기타건설업 분야는 긍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고 생산량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주택건설업 분야는 시장이 계속 약세로 머무를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소매업의 경기선행지수는 2012년 1월 들어 1단위만큼 상승하였지만 물론 역사적인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소매업의 판매량은 계속 감소하였다. 특수제품 판매업의 성장세는 상당히 약세였던 반면, 자동차 판매업은 판매량이 대체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었다. 대신에 식료품업의 판매량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며 식료품업계는 2012년 1월에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간서비스업의 경기선행지수는 1월에 추가로 4단위만큼 하락하였으며 역사적 평균치보다 확실히 하강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민간서비스업에 대한 수요는 2011년 4사분기 간 대략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호텔 및 식당업 그리고 인력파견업 및 건설링 분야의 성장세가 가장 큰 편이었다. 이 분야의 고용률도 2011년 4사분기 동안 전체적으로 볼 때 올라간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서비스업 분야는 2012년 1/4분기 동안 수요 및 고용률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웨덴의 민간 경제만을 두고 볼 때 스웨덴의 제조업과 민간서비스업의 저조한 성장세가 스웨덴의 경기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와 반대로 건설 및 건축 그리고 일일 소매업의 성장세는 경기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2년 1월에 들어 가계의 스웨덴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약간 올라간 편이다.

스웨덴 경제의 마크로 지수는 스웨덴 가계의 스웨덴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종합하여 보여주는데 이 지수는 2011년과 2012년 1월 사이에 약 7단위만큼 올라갔다.⁴⁾ 하지만 과거의 평균 수치에 비해 상당히 내려간 수치이다. 이렇게 스웨덴 가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

4) 스웨덴 경제의 마크로지수에 대한 조사는 2012년 1월 1일과 1월 15일 사이에 수집되었다.

라갔다는 것은 스웨덴 가계가 경제성장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비해 덜 비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스웨덴 경제 성장에 대해 정상 때보다 더 비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스웨덴 가계는 스웨덴 경제가 앞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실업에 대한 불안감도 2011년 12월에 비해 약간 내려간 상황이다. 스웨덴의 주택 용자에 대한 1년, 2년 그리고 5년 변동금리가 약간 내려갔다. 2011년 12월 스웨덴 가계의 인플레이에 대한 기대치는 2.4%였는데 2012년 1월에는 거기서 약 0.3%가 올라간 2.7%를 기록하였다.

■ 스웨덴 노동시장 현황⁵⁾

가장 최근에 발표된 스웨덴 노동시장 현황에 의하면 2011년 12월에 약 393,000명의 스웨덴 노동자가 실업 또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등록된 노동자의 약 8.6%에 해당한다. 이 수치는 2010년 12월의 수치인 8.9%와 비교할 때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해고 사전 통고를 받은 노동자의 수는 4,800명에 달한다. 2011년 12월 중 약 31,000명이 새롭게 구직에 성공하였는데 이는 2010년 12월 중 약 38,000명이 구직에 성공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000명만큼 낮은 수치이다. 2012년 12월 중 약 3만 명이 새롭게 국영직업알선소에 등록을 하였는데 이는 2010년 12월과 비교할 때 약 2,000명이 더 많은 수치이다. 국영직업알선소는 해고 사전 통보를 받은 인원, 구직 성공 건수, 신규 등록 건수 등을 종합할 때 노동시장이 앞으로 더욱 하강 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스웨덴 여러 직업군에 걸쳐 구직난 증가세

스웨덴 노동시장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노동시장 전망에서 2012년과 2013년 2년간 스웨덴 노동시장상 노동 수요가 감소할 것임을 밝혔는데 노동 수요의 감소는 여러 종류의 직업군에서

5) Arbetsförmedlingen, 2012-01-17, Pressmeddelande, "Allt fler tecken på försämring".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구직자들이 구직에 성공하는 일이 점점 어렵게 되고 또한 기존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률도 올라갈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인력난을 겪을 직업의 수도 줄어들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정년퇴직자의 수는 증가할 것이고 대신 직업에 합당한 교육을 받은 노동인구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인력난을 겪을 직업군의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2년에는 고용 규모가 단지 5천 명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2011년 동안 고용 규모가 약 9 만 명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고용 규모가 상당히 줄었음을 의미한다. 2013년에는 2012년보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고용 규모가 약 2만 5천 명 감소할 전망이다.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한 노동 수요가 감소할 것인데 이런 현상은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국영직업알선소에서 발표하는 직업 전망에 의하면 다수의 직업군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발견할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현재 노동시장의 전망이 이렇게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취업을 원하는 숫자는 증가할 것인데 2012년 한 해 동안 약 1.1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업하는 인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용주가 신규 고용 시 경력 및 능력 기준을 높일 확률이 올라갈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바로 교육을 이수한 신규 학교 졸업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고, 또한 외국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해 와서 스웨덴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외국 출신 노동자들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

■ 스웨덴 노동력 수요 직업별로 큰 격차 존재⁶⁾

컴퓨터를 포함한 기술 직종, 특히 컴퓨터 전문가 및 다양한 전문 지식을 가진 대학 출신 공학 기사들의 노동시장은 아직도 계속 밝은 편인데 실제로 이 분야의 노동 수요는 약간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어떤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대신 구인난을 겪을 수도 있다. 이는 신규 구직자와 경력자 모두를 포함하며, 특히 신규 학교 졸업자들은 계속 구직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를 내다볼 때 이런 직종에 교육을 받은 인원이 부족할 것이

6) Arbetsförmedlingen, 2012-01-26, Pressmeddelande, "Svårare att få jobb inom de flesta yrken".

라는 전망이다. 그 이유로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노동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인데 반대로 같은 기간 동안 컴퓨터 및 기술 교육을 받은 인원수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몇 년간 건설업 분야에서 노동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하지만 건설업 분야의 몇 가지 직종은 교육과 경험이 있는 노동자 수 부족을 경험할 수도 있다.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를 내다볼 때 노동 공급의 부족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몇 년간 주택 건설이 계속 늘어날 것이며, 또한 기존 건축물을 수리할 필요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제조업 분야에 종사하는 고용 인구는 앞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장기 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고용 인구수의 감소가 상당히 클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기계 설치사 및 기계 운전자들에 대한 노동 수요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화물차 수리공, 전문 용접공, 기계 제작자 등 보다 전문성이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노동력 수요도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지역별로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구인난을 겪을 수도 있다.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를 내다볼 때 이러한 산업 분야의 노동력 수요는 전반적으로 계속 감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 경험이 있는 노동력의 수요 부족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반면, 이런 분야에 교육을 이수하는 숫자는 감소하고 대신 다수가 정년퇴직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스웨덴의 가구들이 경제적 불안을 경험하면서 소매업, 호텔, 식당 및 기타 서비스업 상품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인원에 대한 노동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직업에 종사할 인원은 계속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원 중 실업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이런 직업에 대한 노동 공급이 높은 것은 이런 직업들에 있어서 이직 현상이 높기 때문이다. 노동 인력의 공급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에 대한 경쟁률은 올라갈 것이다.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를 내다볼 때 소매업, 식당 서비스업, 바텐더 등의 직업에서 경쟁률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행정과 금융 분야 종사자들 중 실업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사회학 전공자들과 인문학 전공자들이 구직에 들어갈 때 취업 경쟁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 관련 전공자들의 노동 공급은 높은 편인데 예외적으로 회계사와 경리전문가들의 노동 수요는 높은 편이다. 행정직 중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 그룹의 높은 실업률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에 공공 부문에서 정년퇴직자의 수가 많이 늘 것임에도 불구하고,

〈표 2〉 직업별 인력 수요 현황

인력이 수요에 미달하는 직업	인력이 수요를 초과하는 직업
공학기사 (전자 및 통신기술전문)	시장 분석가 및 광고담당
공학기사 (전기기술 전문)	건강상담원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개발전문	기계설치전문가 (금속, 고무, 플라스틱)
IT시스템 엔지니어	언어전문가, 통역, 번역
건설현장 소속 박판공	기계설치전문가 (전기 및 전화시설)
공학기사 (건설 및 시설전문)	학생 보조원
의사	화물차 운전자
건설기사 및 건설기술자	일반식당 및 공공기관식당 보조원
IT시험전문가	행정직 (비서)
수술실 전문간호원	저널리스트
유치원교사	간호보조원
정신과 전문간호원	공원정비사
공학기사 (기계전문)	장애자도우미
화물차 수리기술자	청소, 환경미화원
조리사	창고정리원
하수 및 배수시설 전문기사	전문상점 판매원
소아과 전문간호원	홍보담당
조산원	식품 및 일용품 판매원
노인병 전문간호원	사진사
기계제작전문가	아동도우미
건설 양철공	병원 보조원
	선원

자료 : AMS, 2012-01-26, Pressmeddelande, “Var finns jobben 2012?”

고등학교 졸업 및 그 이상 교육을 받은 행정직 종사자들의 노동력 공급은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계속 많은 학생들이 사회학 및 경제학 전공을 원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 부문에 있어서 대학교육을 마친 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계속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사, 치과의사, 전문 간호원 들에 대한 노동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를 내다볼 때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하지만 간호 조무사, 아동복지 보조원, 간호보조원 들의 노동시장은 그렇게 밝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교육을 이수한 간호보조원들의 노동시장 공급 정도는 노동 수요에 만족할 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생 수는 계속 올라갈 전망이다. 이는 바로 초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노동 수요가 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중등학교 취학생 수는 앞으로 몇 년간 감소할 것이며 이는 또한 앞으로 고등학교 취학생 수도 따라서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결국 고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를 내다볼 때, 정년퇴직 하는 교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대신 학생들의 수는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노동시장 전망은 밝은 편이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을 계속 증설하는 상황이라 유치원 교사들의 숫자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 5년과 10년 사이에 발생할 것이다. 또한 전문교육을 받은 실업 과목 교사와 특별 교사들은 장, 단기 모두 노동 수요가 공급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 맺음말

지난 3년 전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 스웨덴의 실업률은 계속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최근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경제성장의 전망이 계속 어두운 상황이라 국영직업알선소는 실업률의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2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스웨덴의 종합경기지수는 스웨덴의 현재 경제 상태가 정상 수준보다 많이 내려간 것을 잘 시사해 주고 있다. 스웨덴의 주요 은행들은 스웨덴의 경제가 세계적인 불경기의 영향으로 스웨덴의 2012년 경제성장률이 1%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수출과 산업 생산은 계속 감소할 것이며, 대신 실업률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스웨덴 서비스직 생산직 노동조합 소속 경제전문가 및 일부 은행 소속 경제전문가들은 스웨덴이 경기를 회복하려면 중앙은행이 기본 금리를 더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앙은행 측은 기본 금리는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률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만이 높은 실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일 국가가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상당수의 스웨덴인들은 실업 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데 이들 그룹에게 있어 생애의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노동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실업자들 중 약 60%는 낮은 교육수준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런 그룹들에게 있어 국영직업알선소가 발표한 일부 인력 부족 직업 분야에 적합한 교육을 이수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일부 노동시장 및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 실업을 하고 있는 그룹이 실업 상태를 벗어나려면 구직 광고를 볼 때 예전의 직업이나 지역을 과감히 벗

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스웨덴의 노동시장에서 청년실업자 10명 중 1명은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데 이들은 또한 국영직업알선소에 구직등록도 하지 않아 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심각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집권하고 있는 중도보수 정부는 전반적인 유럽 경제의 위기를 이유로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 이외에 특별히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실업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스웨덴의 일부 경제전문가는 현재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직업 알선 업무를 외국의 경우처럼 민영화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면 실업자들이 직업 알선 능력이 뛰어난 민간직업알선소를 찾을 수도 있고 따라서 구직에 성공하는 비율도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 운영 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사업주가 고용증대를하기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실업 문제 해결은 직업알선소의 민영화도 문제지만,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따라 기업들이 추가 인력 고용에 관심을 보일 때 해결이 가능할지 모른다. 덧붙여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만이 실업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KLI**